

효의 현대적 이해에 관한 연구: 효 교육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rn Understanding of Filial Piety: Based on the Its Education

안산1대학 여성교양과
부 교수 임희규

Dept. of Women's Culture Ansan 1 College
Professor: Lim Hee Kyu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V. 효의 현대적 이해 |
| II. 효의 개념 | VI. 효 교육의 실천내용 |
| III. 효의 본질 | VII. 결 론 |
| IV. 효 교육의 시대적 변화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ssence and the meaning of conventional filial piety and its education to be a help to build up a moral society. Consequently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grafting our filial piety to industrial society and reviewing our conventional filial piety at the present time and what is the role of education.

The traditional thought of our people is based on the filial piety and it is based on the basic love in humanity, that is, is rooted in the principle of benevolence. We should realize the most important practical principles of reverent affection.

Our traditional filial piety has been handed down along with long history. Though it has been a little changed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fundamental thought of filial piety has never changed.

The education for filial piety in modern society should be taken charge of by family, society and school and be helped each other, So the filial piety thought as traditional ethics has to be adjusted to the modern sense.

We should make a considerable point of the filial piety education for value which will bring about the recovery of humanity.

I. 연구의 필요성

효는 모든 윤리적 행위의 근원으로 중시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윤리의 핵심이 되기도 하였다. 효는 한국의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적인 윤리로 확대되었으며 효에 대한 개념도 사회적 배경과 가치체계가 변화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뚜렷한 규범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와해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재정립되기도 전에 서구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질적인 가치체계의 난립으로 윤리적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한 급속한 변화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보존해 오던 미풍양속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보다 확고한 도덕관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통 사상인 효 사상을 현대적 사회상황에 알맞게 실천하고 교육해 보려는 노력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새로운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효 개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효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덕의 극치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인간사회 최고의 선을 집약한 것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 이에 효 개념에 대한 본질을 재조명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윤리로 새롭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육 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인 효 개념의 본질과 그 현대적 의미를 규명하여 현대 사회에서 효 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논의해보고 인간이 존재하면서 시작된 효가 시대상황에 따라 어

떻게 교육되어 왔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행해지는 실천적인 효 교육을 제시하여 효 사상을 생활 속의 예절로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효의 개념

효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정 먼저 실천해야 할 도리인 동시에 인간의 인격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과 종족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질서 규범(滋賀秀三, 1976:35)으로 효는 성(誠)으로 사랑을 이루고 사랑으로써 아버이를 섬기는데 최선의 힘을 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효 개념은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栗谷은 효 개념의 본질을 사랑으로 보고 “남의 아버지가 된 자는 그의 자녀를 사랑할 것이요, 자녀된 자는 그의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¹⁾ 라고 하여 효가 父慈子孝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孔子는 효의 본질에 있어서 敬의 중요성을 뚜렷이 강조하여 “효도란 물질로서 봉양만 하는 줄 알고 있으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恭敬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라”²⁾ 라고 하여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孝經에서는 “만물이 하늘에서 받은 性品 중에서 사람의 행실이 가장 귀하고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 孝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도는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³⁾ 고하여 사람의 행위 가운데서 아버이를 공경하는 것을 제일의 효로 생각하였다.

孔子는 孝를 仁과 관련하여 ‘孝는 行仁의 根本이다’⁴⁾ 라고 했다. 이는 仁은 어질다는 뜻으로 善의 근원이 되고 行의 기본이 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孟子

1) “兄孝僞父 當慈爲子 當孝” 『栗谷全書』卷二十七 擊蒙要訣 序文

2)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能有養 不敬何以別乎” 『論語』爲政篇

3) 子曰 天地之性 人爲貴 人爲貴 人之行 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孝經』聖治章

는 仁은 아버이를 친하게 하는 자연적인 인생의 발로"로 보았고, 孔子는 "仁의 열매는 아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리라"⁶⁾ 라고 하여 아버이를 섬기는 孝가 그 出發點이 되고 또한 그 근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孝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주이며 효를 통해서 仁을 실천함으로써 효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효의 본질

1. 사회성의 존중

孝經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몸을 세우는 일(立身揚名)로 효도의 끝을 삼아,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患禍가 몸에 미치지 않는 일은 이제까지 없었느니라."⁷⁾라고 하여 효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쉬우나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은 다양하다. 즉,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 부모의 몸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도 효이다. 자기의 몸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이며 立身出世하여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이다.

한편, 論語에서는 '孝悌를 지키는 사람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⁸⁾고 하여 가족 윤리인 효가 사회 윤리의 기반이 됨을 이야기 하고 있고, 孝經에서는 "효로서 백성을 가르침이 가장 좋다"⁹⁾고 하여 국가 윤리의 기반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효란 父慈子孝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봉사하면 忠으로 승화되고, 사회에서 어른을

섬기는 윤리의 바탕이 되면 順(悌)으로 나타나며, 집안(부부지간)에서 베풀어지면 和睦으로, 지역 사회에서 행하여지면 信으로, 자녀 등 아랫사람에게 미치면 慈로 표현되는가 하면, 효의 본질로써 국민을 다스리게 되면 愛民의 윤리가 된다. 효는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이웃 지역·사회·국가로 확대 확충되어 표현할 수 있다.

2. 인륜(人倫)의 중시

인륜은 인간 관계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며(오갑환, 1980:23),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달리 요구된다.

효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하여 공경히 섬기는 행위로 인륜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가족윤리 규범이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외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마음가짐도 의형과 동일하게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를 통해 자기 완성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증자는, 인간도리의 으뜸은 효도이고, 효도를 행함에 있어서 봉양만 한다면 마소와 다름이 없을 것이나 거기에 공경이 있어 사람으로서의 진실한 효행이라고 강조하였다(안태희, 1995:7에서 재인용). 육체적으로 쾌적하게 해 드리고 용돈도 풍성하게 드리며 맛난 음식과 좋은 옷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해 드리는 효,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할 지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효를 더 높이 평가한다. 이는 아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효도를 완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효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論語』 學而篇

5) 大孝終身慕父母, 『論語』 萬章上篇

6) 仁之實親是也, 『孝經』 離案章

7) 子曰 故自天子以下 至于庶人 孝亡終始 而患不及者 末之有也

8) 其爲人也孝悌 而好犯上者 倉羊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論語』, 學而篇

9) 牧民親愛 莫善於孝 『孝經』, 廣要道章

3. 報恩의 마음

효는 부모에 대한 報恩思想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시봉(侍奉)의 효를 들 수 있다. 시봉의 효란 부모를 가까이에서 잘 모시는 것을 말한다. 옛 성현들은 시봉의 효도를 중요시하여 처자에게도 대신 시키지 않았다. 부모를 시봉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려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효자라면 의도적으로 화순하는 모습과 즐거운 기색으로 부모를 대하기도 했다(안봉희, 1995:8)

봉사(奉祀)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생전과 마찬가지로 봉양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효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돌아가셨을 때도 효를 행했다. 봉토를 하고 묘지 주위에 나무를 심어 묘소를 보호하고 제사를 극진히 하여 사후의 장례를 정중히 했다.

이와 같이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과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보다는 공순한 정신적인 자세를 더욱 중시했다.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의 명을 받들어 부모를 위해 힘쓰거나 부모의 뜻을 거르지 않고 공경과 예의를 다해 모신다는 것을 의미 했다. 이와 같이 효는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으로 仁의 근본이며 德의 실행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여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인격자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효의 본질이라 하겠다.

IV. 효 교육의 시대적 변화

1. 고대사회의 효 교육

효는 가정윤리로서 고대국가에서부터 중시되고 강조되어 가정교육의 으뜸으로 삼았으며(안태원, 1993: 11) 조상숭배는 효의 표현으로 정치적 단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경우 고구려때 처음 전래된 불교사상은 비형식적인 교육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형식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교사상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태학을 설립하여 오경과 삼사 그리고 사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당도 설립하여(남궁용권, 1990:47-49) 교육하였다.

신라에서도 국학을 세워 유교의 경전을 주로 교육하였으며 특히 논어와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남궁용권, 1990:54-55) 수신, 수기에 치중함과 동시에 충과 효를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에서는 효경을 필수 교과로 하여 효의 실천을 중요시 하였는데 특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려는 국자감에서 논어와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여(김창련, 1980:57) 변함없이 사회교육으로서의 효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교육제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유학이 큰 영향을 미쳐 효 교육이 강조되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효의 실천이 일상화되었다고 생각된다.

2. 조선시대의 효 교육

조선조에는 퇴계등에 의한 주자학의 형성과정을 거쳐 효사상이 정치적 사회적 규범으로 체계화되었다. 정치 사회적인 교화책으로 효자, 충신, 열녀들의 실화를 수록한 三綱行實圖와 여기에 兄弟, 朋友를 더한 五倫行實圖 등을 편찬하여 기본적인 규범으로 삼았다. 이 규범서의 특징은 효자, 충신, 열녀...순으로 기술되어 있어 효가 사회질서의 으뜸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는 이러한 치국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종적 윤리를 강조한 수직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삼강사상은 부자간의 상하관계와 종적윤리를 강조하여 효를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내지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해하는 子孝를 강조하는 교육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효행자에 대한 포상제도나 불효자에 대한 징벌제도 또한 강화되어(이완재, 1983:

52) 한 개인의 효행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문 나아가 지역사회의 명예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가정과 사회질서의 근본을 효에 두었고 효의 실천이 국가로 확대되어 충이 되었으며 충은 효와 함께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3. 근대의 효 교육

19세기에 접어들어 효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안에서 으뜸가는 덕목으로 변화되어 충과 효와 신의 기능이 나누어지며 각 덕목은 제각기 독립되어 발전되었지만 효는 가정윤리로 위축된 채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효의 윤리가 일반화되고 그것은 그대로 생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父慈子孝'의 원리는 일방적·수직적인 성격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慈'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孝'사이의 상호성이 정립되었다. '父慈子孝'의 원리 속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위로사랑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즉,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방적으로 하는 효가 아닌 부모의 어버이됨과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慈)이 함께하는 부자 공감의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모범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반일 감정을 막기 위하여 군신일체로서의 충효를 본으로 하는 유교적 봉건적인 가치관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봉건적인 가치관을 중심원리로 하는 가부장적 봉건 도덕을 강조하는 수신과목을 중요시 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편, 1989 :285-286). 또한 일본통치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변화된 사회경제체제와 유리되는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더욱 강요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온 효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상과 문화지체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V. 효의 현대적 이해

1. 현대 사회와 가정의 효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사회가 대중화로 변모해 감에 따라 우리 가정의 체계와 역할 기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즉 세대간의 가치관, 경험, 도덕 등에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부모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 배경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문화적 현실 사이에는 세대간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교육이 행해졌으며, 가정의 위계를 지키는 많은 지침이 있었고 그 중 효는 대표적인 가족윤리로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지주였다. 반면 현대사회에서의 가정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가정이 하나의 비인간적 집단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단절, 사랑과 돌봄의 결핍, 공동체의식의 결여 및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로써 가정은 자체의 교육적 책임과 기능을 전적으로 가정 밖의 전문기관인 학교에 위임하게 되었다(은준관, 1976).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데서 오는 가정의 정신적인 공백을 해결하고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 애정을 통한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룩하는데 효의 정신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최고 이념은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일(손인수, 1997:P61)이므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효의 본질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에서부터 참다운 사람됨의 가치관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효를 중심으로 한 가정윤리를 확립할 때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가정의 관계가 획일화, 평균화, 비개성화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가족간의 친밀감을 강화 시켜 주고 점차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확립하여 사회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효의 사회적 기능

효는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효의 사회적기능은 사회 통합기능, 사회 발전기능, 사회총합기능의 세 부분(송복, 199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효의 사회 통합기능¹⁰⁾은 효가 모든 행위 유형의 본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효가 수평, 수직적인 모든 인간관계까지 연장되어 그것이 사회적 행동의 규범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부모를 섬기듯 윗사람 및 연장자에게 공손하고 공경하고 동료에겐 우의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아랫사람 및 연하자에겐 친근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것은 모두가 효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사랑, 즉 육친애와 천륜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협동이나 경쟁 및 이해관계가 전개되도록 사회화를 꾀하는 것이다.

둘째, 효의 사회발전 기능 역시 효를 모든 행위유형의 근본으로 삼는 데서 가능하다. 그것은 효가 가진 특징인 安人¹¹⁾을 사회행동으로까지 연장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이다. 사회행동은 크게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행위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다. 즉 부모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安人の 태도가 사회적으로 까지 확장되어 지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安人の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면 근면과 성실한 태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의 증진을 이루게 된다.

셋째, 효의 사회 총합기능¹²⁾은 효가 여러 사회적 조직체 중에서도 가족 공동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을 말한다. 효는 가족 해체를 막고 건전한 가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가족해체는 곧 효의 파괴행위가 된다.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지향한

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개인의 바람직한 인맥형성, 부부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남녀관계의 윤리와, 순조로운 사회적응이라는 모든 기능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 사회체계가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효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행동 규범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효의 사회적 기능이 바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바르게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곧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의 운명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효의 현대적 의미

전통사회가 농경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봉건적 질서를 중시하는 수직문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면, 현대사회는 산업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평등 윤리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수평문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효라 하면 그저 전통적인 효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오늘날의 사회가 전통사회와는 다른 것임으로 효를 낡은 시대의 구습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기성관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의 산업사회와 민주주의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효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은 매우 분명한 현시대의 요청이라 생각된다.

가치의 본질은 초 시대적이고 초 역사적인 것이므로 가치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의 규

10) 『교육학용어사전』, 배영사, 1981, p572 통합: 구성요소들간의 서로 모순·갈등·충돌이 없는 소극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미있게 서로 연계되어 상호 보조적인 정도가 높은 것.

11) 安人이란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으로 부질 없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12) 『교육학용어사전』, 배영사, 1981 p545, 총합: 일련의 유목적적 활동이 종결되었을때 그 활동의 효율성이나 활동의 결과로서 산출된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행위.

준이라고 여겨지는 가치의 선택만이 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적인 효 관의 정립방향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김유혁(1977)이 제시한 모형(그림 1)을 기초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효가 갖는 의미를 재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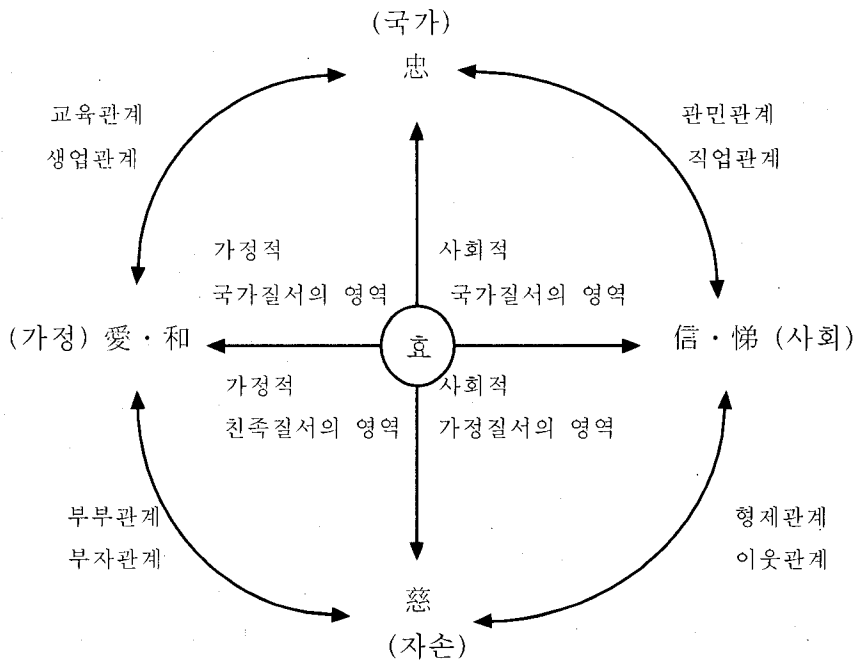
먼저 상향·수직관계로만 인식되었던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관계가 수평·수직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즉, 관민관계와 직업관계를 통한 성실함이 요구되는 사회적 국가질서의 영역과 교육관계 및 생업관계를 통한 자기실천이 요구되는 가정적 국가질서의 영역이 확대된 효개념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는 수직적인 원리와 신뢰를 통한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수평의 관계를 동시에 연결시켜 주는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하향·수직관계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

녀사이의 관계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수평관계와 연계되고 있다. 즉, 효가 자손을 사랑하는 하향성으로 나타낼 때에는 부자관계 및 부부관계를 통한 자애가 요구되는 가정적 친족질서의 영역과 형제관계 및 이웃관계를 통한 우애와 신의의 증진이 요구되는 사회적 가정질서의 영역이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효의 종적 사회관계는 필연적으로 횡적사회관계를 수반하는가 하면 그 횡적사회관계는 효의 수직적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하여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효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 원리는 상향적으로는 국가의 충성을 한다는 충의 윤리로 승화되는 동시에 하향적으로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慈愛로 표현되어 수직성의 종적사회관계 윤리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효의 원리가 수평성의 횡적사회



자료원: 김유혁, '효의 본질' 단국대학교출판부, 1977, p 8.

〈그림 1〉

관계의 윤리로 승화되어 사회적으로는 서로 존경하고 우애롭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梯 또는 信으로 표현되며 가정적으로는 부부간에 和曠한다는 사랑의 윤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현대인의 효 윤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성에 주안점을 두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일방적으로 하는 효가 아닌 부모의 어버이됨과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慈)이 함께하는 부자 공감의 상호적인 관계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효에 대해 혈연중심의 수직적인 가족관계안에서 그 당위성을 논의하여 왔으나 이제 효의 범위를 가정에서 이웃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대하여 수평성의 횡적인 사회관계를 수반하면서 수직성의 종적인 가치체계가 동시에 보여지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성실한 자기 생활을 통해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평화로운 이웃관계를 가지며 신뢰감을 주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

즉, 현대의 올바른 효도상(像)과 부모상(像)의 정립과 함께 올바른 인간상이 동시에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효 교육의 실천내용

오늘날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사이엔 전통성도 합리적인 민주성도 아닌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한 어버이의 뜻을 정성스럽게 받아 들일 줄 아는 실천적인 효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효의 본질은 겸손하고 근면하며 어른을 높이 받드는 데에 있다. 따라서 효는 자발적인 것이며 자율적인 인간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의 본질을 깨닫고 나아가 효의 생활화를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효와 가정교육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최초의 공동

체로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애정과 인격으로 맺어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적 유대에 의한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장소인 동시에 자녀들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발달시켜서 사회적인 윤리질서를 이룩하는 사회화의 기능과 인격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김신일, 1993:69-73). 이러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가족윤리가 필요하며 가족윤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 곧 효이다.

효란 본래 가정 내에서의 실천모델을 통해 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정이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효 실천의 노력과 자녀의 효 실천 교육이 요청된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녀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나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효 실천을 위한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효를 부모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부모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부모는 곧 자녀의 위치에도 있으므로 부모도 한 자녀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효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실천의 계기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행사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행사 때는 서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위계를 경험하게 되며 敬과 孝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절, 제사, 생일, 어버이날 및 기타 축하 행사 때에 각각의 가족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함으로써 '효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의 효행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조부모에 대한 자녀다움의 실상을 실천해야 한다. 부모는 사회의 규범을 자녀들에게 최초로 전해주는 사회의 거울이며 시범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문화에 맞는 가훈을 만든다. 가정이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려면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각 가정에는 가훈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사회생활

의 토대를 이루게 되므로 각 가정은 현대생활 속에서 정신문화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가훈을 효를 중심으로 정립한다면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효심이 우리나라를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서로 돕고 우애 있는 형제애를 갖도록 지도한다. 건전한 가정이란 부부간에 화목하고 禮敬을 지킬 줄 알고 자녀에게 사랑과 이해가 있고 올바른 수용태도를 가진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질서의식, 사회의식, 규범의식, 법의식의 기초를 배우며 도덕성을 길러 나간다. 따라서 어릴때부터 자기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격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처럼 부모가 효를 요구하기 보다는 효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여 자녀들이 잘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모범, 가훈,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 확대된 효의 개념을 가정규범으로 적극 유도할 수 있어야겠다.

2. 효와 학교교육

근대 이후 실용주의 교육사상이 도입되면서 교육은 효율적인 가치관에만 치중하여 인간교육, 덕성교육을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가져온 모순은 갈수록 확대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인간화의 문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도리이다.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한 교과로 삼아(유승국, 1977:88) 고구려 사회에서는 인의 사상이 주가 되는 오경이 주요 과목이었고, 신라 시대에는 청년교육의 지침으로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에서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한 논어와 효경은 필수과목으로 하였다(유승국, 1977:85). 이러한 전지에서 현재의 학교교육을 볼 때 효의 적극적인 개념을 개발하여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효 교육 역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암기를 강요하는 교육에 그쳐서는 안되며(고봉주, 1978), 학생

들에게 성숙된 자아를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효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보다 경외롭고 가치로운 행동을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경로사상 함양으로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하듯 이웃어른까지도 공경으로 대하도록 가르치고, 또 이것을 마음의 따뜻함과 정성과 성실로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효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써 의무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며 효친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련된 행동이라도 도덕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효의 덕목 그 자체가 부모나 어른에 대한 깊고 따뜻한 존경과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윤리교재 편찬위원회, 1983).

효 교육의 생활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 교육을 전개하는 효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의식의 함양과 그 모범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자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 인성이 피교육자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해야 한다. 효의 실천은 효의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효의 정신과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여 자율적, 자발적인 행위가 되도록 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양 노원이나 그 밖의 다른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둘째,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생애, 활동, 인류에게 공헌한 바를 알게 하여 마음가짐을 본받게 한다.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고 도덕적 행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여 그 마음가짐을 통해 본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행동에 대한 이론적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효 교육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효 교육에 있어서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화란 효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 도덕 또는 원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이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도덕적인 기본원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나 가치관을 이해 시키고 그러한 가치관이나 원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교육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인사는 항상 경애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가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인사의 종류를 가르쳐주고 이에 따른 인사법을 가르쳐주는 것, 서로 돕는 마음을 길러 주기 위해 노약자 및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지도하는 것, 수재민 돕기나 자기 집앞의 쓰레기 치우기 등과 같은 활동에 가담하여 이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경애의 성실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비중을 두어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효의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효의 정신과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여 자율적·자발적인 행위가 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3. 효와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하는 행동의 전체를 의미한다. 효의 교육은 가정, 학교 및 사회로 연결되는 생활장소의 확대에 순응하면서 이루어지고 도덕가치의 형성과 병행하여 행동되어 가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교육은 가풍과 사회적규범이 교육내용의 주축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효는 가장 으뜸 덕목이었다(강우철, 1977:90). 그러나 단적으로 효를 부모와 자녀와의 인간관계로 생각하면 부모들은 마치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에게만 잘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다. 백행의 근원으로서의 효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지는 것은 핵가족사상이 파급되면서 효의 행동범위는 사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다시 가정으로 축소되어 갔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가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자녀들에 대한 사회화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 보상으로 나타난 현상이 과잉보호이며 그 역기능으로 인한 결과가 문제의 가정과 문제의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는 효의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의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효의 당위성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효에 대한 의식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의 전통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효 체계를 교육한다는 국민적 자각은 일으키지 못했다. 따라서 효 교육의 부재는 자라나는 세대에 정신적인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효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을 위해 사회는 효와 관련된 자료 및 예화를 체계 있게 정리하여 이를 교육 자료에 폭 넓게 활용해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여 효 교육을 발전 시켜야 하리라 본다.

둘째, 사회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의 실천을 권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효행실천운동의 보급과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언론보도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는 효에 대한 계도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 비행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거나 교정하는 사회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윤형모, 1979). 따라서 사회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한 결과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는 비교육적인 환경이 범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

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효에 대한 본보기로는 孝子碑, 烈女門 등이 있었다. 이처럼 보상을 주는 반면 불효자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견제와 선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오늘날 국가, 민간이나 사회단체의 효행상 수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효행상은 효의 이념을 바탕으로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며 보호 부양하는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시상함으로써 사회의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와같이 사회정의가 효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낼 때 사회 교육을 통한 인격의 완성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경애의 윤리도 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배양되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청소년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선도에 앞장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신문화적인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세대간을 연결하는 종적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대화는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기본이 된다. 동일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세대를 계승해 갈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빈곤 내지 결핍은 사회의식의 격차를 가져오게 하고, 가정에서의 父子·祖孫간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 대화의 채널을 다양하게 조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교육은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가 뚜렷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 실천과정을 통해 효가 사회적 행위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갖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효에 대한 개념 파악을 명확히 하고 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효의 본질과 그 시대적변화에 대한 고찰하였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를 중심으로한 효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효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효를 생활속의 예절로 자연스럽게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사랑과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인성교육의 기본적 내용이며 소재이고 인간세계의 이해와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한 원리이다. 인성형성의 기본 집단인 가정의 가족적인 사랑과 공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학적 연구에 의의를 두었다.

효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사랑, 공경, 인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효는 애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주로 현대적인 효의 의미와 교육적인 방향을 찾기위해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효 교육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그 중심내용은 효가 가정과 사회질서 그리고 나아가 치국이념 이었다.

효 교육은 형식적 교육기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가장 중요시되는 교육 덕목으로 생활속에서 실천을 중시하였으며 가정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로서 효의 윤리가 일반화되고 생활화되어 있다.

효의 현대적 의미를 분석하기위한 전단계로 가정과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효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효는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가족간의 친밀감을 강화시켜 주고 점차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확립하여 사회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 효란 가정에서는 父慈子孝로 나타나고, 나라에 봉사하면 忠으로 승화되고, 사회에서 어른을 섬기는 윤리의 바탕이 되면 順(梯)으로 나타나며, 지역 사회에서 행하여지면 信으로, 자녀등 아랫사람에게 미치면 慈로 표현되는 가 하면, 효의 본질로써 국민을 다스리게 되면 愛民의 윤리가 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개인적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웃·지역·사회·국가로 확대 확충되어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孝 사상이 한 인격체 교육에 미치는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격의 형성과 성장, 인간애의 바탕, 도덕적 규범의 학습과 양심의 형성등에 있어서 효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

게 하는 폭 넓은 지혜를 제공해 준다.

보다 구체적인 효의 실천을 위해 가정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첫째, 효의 실천을 숭선수범하는 부모상의 정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가정문화와 가정윤리가 될 수 있는 가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셋째, 우애있는 형제애를 갖도록 지도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고 질서의식, 규범의식등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에서는 확대된 효의 개념을 가정규범으로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는 첫째, 효의 실천을 위한 교육자 자신의 모범적인 태도와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인류에게 공헌한 인물의 사상을 존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교육하며 셋째, 효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환경을 제시해주고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교육은 효의 덕목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효의 정신과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여 자율적·자발적인 행위가 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효실천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첫째, 효의 생활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 둘째, 효행실천운동이나 효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교육에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를 이용하 것, 셋째, 효행상 수상등을 통한 효에 대한 계도교육을 해야 하는 것, 넷째, 세대간을 연결하는 종적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교육은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가 뚜렷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실천과정을 통해 효가 사회적 행위 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효 교육은 가정교육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있어서 상호연계의 풍토를 조성하여 친애와 신뢰와 존경과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봉사정신을 함양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효실천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학교·사회를 통해서 계속 실행되어야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효 교육의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내용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상호 연계 속에서 실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論語

孝經

- 국민윤리교재편찬위원회(1983). 국민 윤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권기덕외 2인(1982). 인간관계, 서울: 형설출판사
- 김대환(1987). 사회의 학교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김신일(1993). 교육의 관점에서 본 효의 현대적 이해, 한국청소년연맹
- 김유혁(1977). 효의 본질,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남궁용권(1990). 교육사신훈, 서울: 교학연구사
- _____ (1993). 신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 배종호(1981). 국민과 윤리, 서울: 박영사
- 손인수(1997). 한국인의 효도문화, 서울: 문음사
- 송복(1993). 효사상과 사회 발전, 서울: 탐구당
- 오갑환(1980). 사회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 양희열(1993). 효 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윤형모(1979). 충효교육, 한국교육원서
- 은준관(1976). 교육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규호(1986). 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영노(1991). 전통적 효 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원호(1994). 전통 윤리와 경로 효친, 서울: 용원문화사
- 최인홍(1982). 한국 윤리 사상, 서울: 성문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효사상과 미래사회,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성원 교열(1992). 소학집주, 서울: 명문당
- 김혁제 교열(1992). 논어집주, 서울: 명문당
- 박일봉 편역(1992). 효경, 서울: 육문사